

天道簡說

⊕ 國際道德協會 (一貫道)

II 차례

- 머리말 4
- 1. 종교의 필요성 6
- 2. 바른 종교생활 9
- 3. 일관도의 개요 17
 - ① 도(道)란 무엇인가? 17
 - ② 교(教)란 무엇인가? 20
 - ③ 도와 교의 차이점 22
 - ④ 도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내력
(도의 강제 연혁) 24
 - ⑤ 우리나라에 일관도가 지금까지
전해 온 내력 36
 - ⑥ 왜 일관도라 하는가? 38
 - ⑦ 일관도의 이념 41

- ⑧ 강령과 종지 45
- ⑨ 일관도의 핵심적인 가르침 47
- ⑩ 일관도에서 모시고 있는 신불 ... 50
- ⑪ 구도의 의의와 예식 절차 55
- ⑫ 일관도에서 행하는 제반행사 64
- 4. 도리공부 66
 - ① 삼천(理天·氣天·象天)에 대하여 ... 67
 - ② 삼기(三期)에 대하여 73
 - ③ 일원의 변천과정 81
 - ④ 오교성인의 성리심법 87
 - ⑤ 일관도의 경전안내 91
- 5. 법단에서 쓰이는 용어 해설 93

||머 리 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금종(金鍾)이 있을지라도 두드려보지 않고는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도덕과 윤리 강상이 땅에 떨어져 인심이 피폐한 요즈음, 6만년만에 천도가 강세하여 성인의 심법으로 타락된 인심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대동세계를 건립하기 위해 일생을 희생하신 곡수곡인께서 진천대도의 바른 진리를 모든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관도의 기초 도리를 가장 알기 쉽게 풀이한 책자가 없는 것을 항상 염려하셨습니다.

그리하여 84년 봄, 곡수곡인께서 부족한 저에게 천도간설(天道簡說)이란 책의 제목을 주시면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도리(道

理)에 대한 내용을 써 보라는 하명을 하셨습니다. 그 뜻에 따라 심오한 도리를 간략하게 엮어 보았습니다.

도는 문자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말이나 글자를 빌리지 않고는 알리기가 어렵다고 사존대인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만 치우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메마른 이 때 자기의 본래를 찾으려는 모든 분들에게 일관도의 입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장력이 부족하고, 도리에 해박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으면 합니다.

여선 박 경 임

1. 종교의 필요성

인간은 본래 자신의 무력함을 느낄 때 절대자나 인간보다 우월한 어떤 힘을 빌려 자기 생활의 안정과 만족을 구하려고 노력해 왔으며, 자기완성의 길을 찾기 시작하면 서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종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종교는 생활의 일부분으로 사회가 발달해 가는 속도와 같이 믿음의 방식도 여러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수없는 변천과정을 거쳐오게 되었다.

정신세계가 개발되지 않은 미개인들이수록 종교의 가장 초보적인 자연신앙인 당산 나무나 바다·달·해 등의 자연물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정신력이 고도로 발달된

문화민족일수록 어떤 인격체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완성의 길을 실천하여 왔다.

그보다 훨씬 발달된 오늘날 종교의 유형에는 인간과 신을 동격으로 보는 사상이 나왔으니, 이는 이미 인간의 내면세계에 곧 신불의 세계가 있음을 감지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주가 창조된 생성원리와 일치할 수 있는 똑같은 자아의 세계가 있음을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본래의 천진하고 순수했던 깨달음의 세계를 외면해 버리고, 물질에 현혹되고, 몰욕에 가리워져 오락악세의 현상을 빚어내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듯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자기 인격의 완성과, 보다 나은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다운 믿음생활은 필요하다.

바른 신앙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떠한 학문적인 가르침을 얻는 것보다도 큰 마음의 보배를 얻는 것이니, 마음에 강한 의지처가 되며 일생을 흐트러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지주가 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종교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천진하고 순진무구했던 진아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위하여 자성(영혼) 안에 무한히 잠재해 있는 가능성(양지양능)을 찾아 개발하고, 나날이 변화되어 가는 사회생활의 적응과 개개인의 안녕 질서를 위하여 올바른 종교의 선택과 바른 믿음생활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2. 바른 종교생활

오늘날 전 세계에는 6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다. 지역마다 자연환경이 다르며 생활습관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거기에 따라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의 양상도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나 각 종교마다 추구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 같이 잃어버린 인간성의 회복과 본래면목을 찾는 데 있다.

인간은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만족과 완성을 통해 보다 나은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종교를 찾게 된 것이다.

부족과 불만족의 세계, 괴로움과 고난의 현실에서 보다 나은 미래의 향상, 발전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평화와 번영과 보람을 찾고, 자기환경의 조화와 원만한 대인관계 등

행복한 삶을 위해 올바른 종교생활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 개개인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의 실현, 또는 자기완성에의 보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참다운 진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종을 초월하여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생활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인종이나 생활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언어나 기타 어떤 여건에도 막힘없는 이상적인 세계의 건설과 참다운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은 무엇보다도 누구에게나 통용될 수 있는 행동이나 언어 이전의 것이라야 하겠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이 나타

나고 땅이 생기기 이전의 우주의 근본적인 원리, 이 원리야말로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섭리요, 인간 내면의 세계에 부여해 주신 참다운 나인 것이다.

인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등하게 갖추어진 마음이 세계를 개발하여 본래의 면목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때, 세계는 대립이 없는 한 가정 곧 대동세계, 한마음의 세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진리인 창조주의 섭리에 똑같이 귀일(歸一)될 때 일관(一貫)이 되는 것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이상의 세계가 도래할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명의 이기와 물질만능의 사고방식 때문에 물욕에 가려져 근본 양심을 잃어가고 있다. 가장 진실되고 고요하여 청정하며 순진무구한 마음의 세계

를 외면한 채 외부의 물질세계에 현혹되어 본래의 참다운 모습을 등지고 극도로 살벌한 현실을 빚어내고 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살육전쟁에서부터 작게는 한 가정의 다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원인은 마음 속 진실의 세계를 외면해 버린 자아상실의 인간들이 불러 일으킨 오탁악세의 현상이다.

이토록 극심한 사회의 혼란과 불안하고 살벌한 인간세상을 가장 질서있게 바로 잡으려면 본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내면의 세계, 곧 마음 마음들을 천진한 본래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하여 진실로 참다워질 때 세계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요, 대동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성 회복은 진실한 신앙의 힘이 아니고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리라 본다.

그렇다면 현실에 가장 실현성이 있는 신

앙이 있어야 한다. 온 인류가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본성인 진아를 눈뜨게 하여 천진한 본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상적인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은 인간 각자 각자가 깊은 마음 속의 진면목을 찾아 누구나 하나로 귀일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는 대립도 원망도 있을 수 없는 순수함의 일치(一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고 대동세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이 일치의 세계(대동세계)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먼저 대우주의 섭리(자연의 이치) 가운데서 부여받은 생명의 근원을 찾아 본래의 순수함으로 회복시켜야만 한다.

비진리의 현실인 물질만능의 물욕심을 이기고 마음 속의 참진리의 세계(본래면목의 회복)를 찾아야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 비로소 이 땅에 평화와 질서가 자리잡게 될 것이며 올바른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들 속에 성숙될 것이다.

지금은 천도가 이 땅에 내려 우주의 섭리(道)와 통하는 마음의 소재처를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하여 누구나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대동의 세계를 건립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조물주 하느님의 이치가 삼라만상을 움직이고 있다면 조물주(노모님)의 이치 가운데서 부여받은 인간 내면 속 진아의 주재자(천부지성, 본성, 영혼)는 자기의 육신인 소우주를 움직이고 있다.

우주의 핵심인 도와 인체의 핵심인 본성(도·마음·성리)을 일치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을 과거 성인이나 부처님들은 이미 깨달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명사일지점인 심인진법¹⁾으로 직지인심 견성성불²⁾하게 하는 천도의 핵심인 것이다.

이 이치는 계계승승 단전(單傳)으로 맥을 이어 전해 오다 오늘날 보도운³⁾을 만나 서민에게 전해지고 있다.

만법이 귀일될 일관의 진전을 구해 마음밭[心田]을 개발할 수 있는 믿음생활이야말로 방황하고 있는 현시대의 모든 이들이 반드시 찾아야 될 마음의 본향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요,

註 1) 심인진법(心印眞法) : 도통맥을 이은 명사(明師)로부터 마음자리에 일지점(一指點)을 받아 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을 찾는 법.
 2)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指人心 見性成佛) : 사람의 마음자리를 직접 가르쳐주어 본성을 잘 닦아 본래로 회복하는 것.
 3) 보도운(普渡運) : 단전독수로 내려오던 성인의 심법을 누구나 명사의 일지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아를 깨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노선인 것이다.

3. 일관도의 개요

① 도(道)란 무엇인가?

도라는 것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다. 도는 모든 형상이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이요, 넓고 큰 우주의 본체이며 오묘한 생명체의 실상이므로 그 뜻이 심히 깊고 이치가 지극히 무궁한 선천의 묘법이다. 크게는 대우주를 품으며 작은데 이르러서는 아주 미미한 곳에서도 감취질 수 있으니,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이 두루하므로 그 신통하고 오묘한 이치를 문자나 언어로써 나타내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다.

도는 이치를 떠나서는 만사만물이 한 치도 움직일 수 없으니 이 도가 하늘에 있어서 천리(天理)요, 만물에 부여되면 물리

(物理)가 되고, 땅에 부여되면 지리(地理)가 되며,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리(性理)가 된다.

과거의 성인들은 사람에게 부여된 성리의 참된 이치(天賦之性)를 깨달아 도의 참뜻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리(性理)로써 사람이 하늘과 더불어 통할 수 있는 핵심이자 원만하게 깨달아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노선임을 알게 되었다.

“인도(人道)를 다하면 천도(天道)에 가깝다”는 말은 이 뜻에서 유래했으며, 이 이치를 떠나서는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는 대우주 진리의 본체가 도(道)임을 알았으므로 사람을 일러 하늘[人乃天]이라고 한 말이 결코 틀리지 않다.

그러므로 도는 우주의 섭리를 깨달아서 얻은 성인이 살아 계시는 기간에만 전해질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천명이다.

또 이 때는 대자연의 섭리¹⁾와 인간의 본성²⁾이 하나로 일치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간이요, 인간의 본성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오탁악세를 천량심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세의 방안이 되고 있는 시기이다.

이 진천명으로 일관도에서는 인연있는 사람에게 성리심법(性理心法)³⁾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초생료사(超生了死)⁴⁾ 할 수 있고 난세에서 겁난을 면할 수 있는 대도가 이 땅에 내린 것이며 우리 영혼의 고향⁵⁾으

註 1) 대자연의 섭리 : 도, 이치, 묘(妙)라고도 한다.
 2) 본성 : 양심, 불성, 성리, 영혼이라고도 한다.
 3) 성리심법(性理心法) : 역대조사의 천명으로 이어져 전해 온 본성의 이치를 마음으로 밝히는 법.
 4) 초생료사(超生了死) : 삶을 초월하고 죽음을 영원히 마친다는 뜻으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또는 부활이라고 한다.
 5) 영혼의 고향 : 무극(無極), 선천(先天), 이천(理天).

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여 말한다면 도는 바로 만물의 주재요 생활의 요소이며, 일체 정(情)을 가진 모든 것의 교주가 되며, 지극히 신묘한 진리이므로 성스럽고 현묘한 대덕인 것이다.

② 교(教)란 무엇인가?

오늘날 인류에게는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있다면 오교성인의 성리심법을 들 수 있다.

과거의 성인들이 천도의 오묘한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 그 깨달음의 참된 뜻을 말씀으로 전하였으며 그 말씀의 기록을 후세에 전한 것이 오교의 경전으로 남아있다.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유교의 사서삼경이요,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셨

던 대도의 오묘한 이치를 49년 동안 설하신 것을 기록하여 남긴 것이 불경이며,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 3년간 하느님의 뜻[말씀]이라 하여 전하신 그 기록이 오늘날 신약전서[성경]를 이루고 있다.

후세인들이 성인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경전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교화되고 있는 기간을 교(教)라고 일컫는다.

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전해지는데 예수나 석가의 가르침이 오늘날 기독교나 불교의 경전에 의해 교화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③ 도와 교의 차이점

■ 道

① 성인 : 우주의 본체인 대도의 이치를 깨달은 분이 계시는 기간
② 천명 : 진천명(성인이나 부처의 가르침)으로써 중생을 제도하는 기간에만 진천명이 있다.
③ 제자 : 성인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제자가 선발되는 기간
④ 기간 : 성인이 살아 계시는 잠깐 동안 진천명이 있어 도가 널리 전해진다. (예) 석가의 전법기간 49년 예수의 전도기간 3년
⑤ 교화방법 : 하늘에서 사람의 힘을 빌려 선불이 합령되어 제도를 하는 기간
⑥ 초생료사(부활) : 성인으로부터 성리심법을 구하여 초생료사와 탈겁피난이 가능한 기간
⑦ 형태 : 뿌리(천문만교를 다 포괄한다)

■ 教

① 성인의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경전이 있다. (예) 석가 : 불경 예수 : 성경 공자 : 사서삼경 노자 : 도덕경 마호멧 : 코란경
② 경전에 의해 중생들에게 성인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기간
③ 과거의 성인이나 제자들의 발자취를 본받는 기간
④ 성인이 가신 뒤 경전에 의해 오랫동안 교화되며 이 때 도는 단전으로 숨어서 전해진다. (예) 불교 : 3천년, 기독교 : 2천년
⑤ 사람의 힘으로써 경전에 의해 교도(教導) 교화(教化)
⑥ 성인의 성리심법을 구할 수 없으며, 초생료사와 탈겁피난이 불가능한 기간
⑦ 가지, 줄기, 잎(경전 해석에 따라 각종 각파가 생긴다)

④ 도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 온 내력

도의 강세 연혁

도조(道祖) 노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도는 형상이 없으나 천지를 생육한다’ 하셨다. 이 말씀은 천지의 근원이 도에서 나왔음을 의미하여 만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태호 복희씨께서 세상에 나시어 천문과 지리를 살피시고 천지의 이치를 연구하신 결과, 팔괘를 그려내시어 대도의 오묘함을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이것이 대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된 시초이다.

이어 옛 성인들께서 깨달으신 골수가 심인진법(心印眞法=일지점)으로 도통맥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일관도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다.

복희씨가 광성자에게 전수하시고, 현원씨가 광성자에게 지점을 받아 도맥을 이은 후 뒤를 이어 요·순·우·탕·문·무·주공 등 여러 성인이 심법을 서로 전해 도통맥을 이었다. 주나라 초에 도조 노자께서 이 도를 크게 깨달아 밝히신 후 공자에게 전수하셨다.

공자의 계왕성개래학¹⁾이라는 위공이 요순보다 더 크며, 공자는 삼천 제자 중 안자에게 전하고 다시 증자에게 전하시니 一貫의 명칭이 경전에 실려 있으며, 증자께서 다시 자사에게 잇고 자사가 맹자에게 전수한 유교의 맥이 오늘날 기록으로 남아 있다.

도운이 이미 서역[인도]으로 건너가 석가불이 대도의 이치를 원명하게 깨쳐 그 깨달음의 진의를 49년 동안 설하셨다. 하지만 말

註 1) 계왕성개래학(繼往聖開來學) : 가신 성인의 뒤를 이어 오신 성인의 심법(心法)을 전하는 것.

과 글로는 전할 수 없는 대도의 본 뜻¹⁾을 많은 제자 중 가섭 한 분에게만 전수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교외별전²⁾이요, 불이법문³⁾의 법이다.

가섭이 다시 아란에게 전수하고 또 계속 단전으로 뒤를 이어 28代까지 내려왔으며 28代 조사가 동토[중국]의 초조인 달마대사이다. 달마께서 도맥을 가지고 양나라 무제 때 중국으로 건너 오시니 도운이 서역[인도]에서 다시 동토로 오게 된 것이다.

달마께서 신광을 만나 후계를 삼은 후 다시 중국에서 도맥이 이어져 단전으로 계속 전해 오다가 15조 왕조 때 이르러 요지금모의 강필⁴⁾에 의하여 일관도(一貫道)란 명칭

註 1) 대도의 본 뜻 :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의 법.
2) 교외별전(敎外別傳) : 가르침 밖에 별도로 전하는 법.
3) 불이법문(不二法門) : 정법은 둘이 아니다.

이 처음 나오게 되었다.

다시 16조 유조께 전하여졌고 유조께서는 유·불·선 3교의 교리를 합일하셨다. 17조 로조께서는 보전⁵⁾에 힘쓰셨으며 도통맥을 이으셔서 오늘날 널리 보도⁶⁾(普渡)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1947년 곤수곡인 김복당 노전인께서 18대 공장·자계 조사의 천명을 받들어 중국 천진 도덕단으로부터 내한하여 일관도의 성리심법을 전해 오고 있는 것이다.

註 4) 강필(降筆) : 선불과 합영되어 선불의 혼화를 글로 쓴 것.
5) 보전(普傳) : 여러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것.
6) 보도(普渡) :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것.

참 고

■ 홍양기(인도)의 역대조사

• 불조 - 석가모니불

- | | | | |
|-----|------|-----|------|
| 1조 | 마하가섭 | 2조 | 아란타 |
| 3조 | 상나아수 | 4조 | 우바국다 |
| 5조 | 제다가 | 6조 | 미차가 |
| 7조 | 바수밀 | 8조 | 불타난제 |
| 9조 | 복타밀다 | 10조 | 협존자 |
| 11조 | 부나야사 | 12조 | 마명존자 |
| 13조 | 가비마라 | 14조 | 용수대사 |
| 15조 | 가나제바 | 16조 | 라후라다 |
| 17조 | 승가난제 | 18조 | 가야금다 |
| 19조 | 구마라다 | 20조 | 사야다 |
| 21조 | 바수반두 | 22조 | 마노라 |
| 23조 | 학능라 | 24조 | 사자야사 |
| 25조 | 바사사다 | 26조 | 불여밀다 |
| 27조 | 반야다라 | 28조 | 보리달마 |

■ 동토(중국)의 역대조사

1조 보리달마(菩提達摩) : 향성고불 화신이며, 성은 찰리.

인도에서 양나라 무제 때 중국으로 건너가 신광[혜가]에게 명사일지점(明師一指點)을 전했다. 송산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향해 앉아 참선만 한 것으로 유명하다 (면벽 9년).

2조 신광(神光) : 연등고불 화신. 달마에게 심인진법(心印眞法)을 얻어 대도를 깨달았다.

(달마보존 책자를 필독하시기 바람)

3조 승찬(僧燦) : 영보천존 화신.

4조 도신(道信) : 영기황인 화신.

시호는 대의선사

5조 홍인(弘忍) : 상제금동 화신.

성은 주씨이며 황매 사람으로 시호는 대만선사.

6조 혜능(慧能) : 지장고불 화신.

조사의 도통맥을 신수에게 전하기로 정해진 뒤 불문에 들어와 신수보다 먼저 대도의 이치를 깨달으므로 5조 홍인에게 밤 삼경에 심인진법을 전해 받은 후 18년을 숨어 다니다 속가에서 후계를 구해 이 때부터 속가에도맥이 전해졌다. (육조단경 참고)

7조 백조(白組) : 남악대제 화신

마조(馬祖) : 마명존자 화신.

단전(單傳)의 전통을 깨고 두 분이 맥을 잇게 되었다.

8조 라조(羅祖) : 태상고제 화신.

9조 황조(黃祖) : 원시천존 화신.

10조 오조(吳祖) : 문창제군 화신.

11조 하조(河祖) : 계모천존 화신

12조 원조(袁祖) : 원시천존 화신.

13조 서조(徐祖) : 미륵고불 화신.

양조(楊祖) : 남해고불(관세음보살) 화신.

이 때 처음으로 미륵불이 화신하였으며 좌보처인 남해고불 화신인 양조와 두 분이 도통맥을 이었다.

14조 요조(姚祖) : 요지금모 화신.

15조 왕조(王祖) : 수정자 화신.

석가불로부터 42조인 요조까지 이름도 없이 전해 오던 진전의 맥¹⁾이 15조 왕조에 이르러 요지금모의 강필(선불의 예시)로 인하여 「일관도」란 명칭을 처음 붙이게 되었다.

16조 유조(劉祖) : 태극화신.

일관도(一貫道)에 삼교(동양의 3大 종교

註 1) 진전의 맥(眞傳의 脈) : 성인 한 분이 한 사람의 수제자에게 진리의 핵심을 전하여 그 맥을 이었다. 즉 단전독수(單傳獨授)의 도통맥.

인 유교·불교·선교)의 교리를 합일시켰다.

17조 로조(路祖) : 미륵고불 화신.

13조 서조로 미륵불 화신이 첫 번째로 오셨고 이 번이 두 번째로 오신 것이다. 세 번째 미륵불 화신이 오시게 되면 세상에 도(道)가 널리 알려져 제도가 끝나고 교화법으로 된다.

우리가 매일 소향(예불) 때 김공조사라 칭하고 있는 부처님이며, 백양기 미륵부처님 운을 처음 맡고 오셨다는 뜻에서 백양기 초조라고도 한다.

18조 궁장조(弓長祖) : 제공활불 화신.

자계조(子系祖) : 월혜보살 화신.

18조 역시 두 분이 맥을 이었다.

궁장조의 다른 명호로는 사존대인, 은사대인, 활불사존, 천연고불, 사존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백양기 미륵부처님 운에 두 번째 오시

는 조사이시며, 진천명으로 성인의 명사일지 점을 전하여 삼조보도¹⁾의 책임을 맡으신 부처님이시다.

자계조사를 다른 명호로는 성모님, 월혜보살, 모친노대인, 자모대인, 천진고불이라고도 부르며, 삼기(三期) 미륵 부처님 운에 수원대사²⁾를 맡으신 부처님이시다. 바로 우리의 명사(明師)이시며 삼조³⁾의 원불자⁴⁾들을 구도⁵⁾로써 선천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수원의 책임자이시다.

우리가 구도할 때 표문에 성모님(明師)의

註 1) 삼조보도(三曹普渡) : 천상의 대선, 지옥중생, 인간 세상의 전인류를 널리 제도함.
 2) 수원대사(收圓大事) : 삼라만상에 일관도의 한 근본을 전하여 본래로 환원시키는 일.
 3) 삼조(三曹) : 기천선불, 인간, 지부의 망령.
 4) 원불자(原佛子) : 황태원자(皇太原子)라고도 하며 본래대로 환원될 수 있는 착한 불자.
 5) 구도(求道) : 일관도의 진학맥인 도통맥으로 자기의 자성자리를 찾는 법.

존함을 기록하지 않으면 도를 전해 받을 수 없으며 귀가인모⁶⁾가 어렵다.

18조 이 후에는 도맥을 잇는 조사는 없다. 1년도 입추가 지나 18일이 되면 모든 초목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18代 조사 이 후에는 우주에 대 추수기가 다가온다.

(뒷면 1원의 변천과정을 참조)

지구상에 많은 이변이 일어나며 이 변화로 인하여 기상이 변하게 되고 우주의 모든 도수가 바뀌게 된다. 혹자는 이것을 일러 말세현상이라고도 하지만 세상의 종말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를 지나 이 지상에는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며 오늘날의 혼란한 인심을 바로잡고 새 질서를

세우실 삼기의 구세주는 바로 미륵부처님이시다.

한국에 일관도의 성리진전을 전하러 오신 곤수곡인 김복당 노전인께서는 18조로부터 진천명을 전해 받으신 후 한국 동포를 제도하기 위해 처자권속과 세속의 부귀영화를 모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지 44년 동안 백절불굴의 노력과 피나는 정진으로 갖은 고마에도 굽히지 않고 오늘날 100만이 넘는 동포들에게 일관도의 심인진법¹⁾을 전해 주신 대 스승이시다.

註 1) 심인진법(心印眞法) : 도통맥을 이은 명사로부터 마음자리에 일지점을 받아 본래로 돌아갈 수 있는 근본을 찾는 법.

註 6) 귀가인모(歸家認申) : 본래 영성의 고향인 무극이천으로 돌아가는 것.

㉔ 우리나라에 일관도가 지금까지 전해 온 내력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연혁’

우리나라에 일관도를 전하신 곤수곡인 김복당 노전인(老前人)은 경주 김씨의 13대 후손으로서 선조가 사신으로 가신 중국 땅에서 태어나 중화민국의 국적을 가지셨던 분이다.

인도에서 28대로 도통맥을 이어 중국으로 도맥을 전하신 동토의 처음 조사인 달마대 사로부터 18대 째로 도통맥을 이은 공장조사께 일찍이 천명을 받으시고, 한국 동포를 제도하기 위해 1947년 5월 중화민국 천진에서 처자권속과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시고 한국에 오셨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47번지에 처음 본부 인덕법단을 마련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일관도의 성리심법을 전하고자 전도를

시작하셨다.

1965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73-81번지로 중앙총본부를 이전한 후 더 한층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도고일척 마고일장(道高一尺 魔考一丈)으로 천 가지 만 가지 고난이 따라 다녔다. 그러나 곤수곡인 김복당 노전인께서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다 이겨내시어 1991년 1월 26일 반백성도(反白成道) 하시기까지 44년 동안 백절불굴의 노력과 피나는 정진으로 갖은 고마(考魔)에도 굽히지 않고 조국의 원불자(原佛子)들을 제도하는데 주력하셨다.

그 결과 오늘날 160 여개의 공공법단과 구도인 수 120여만 명을 헤아리는 대 발전을 이루어 도덕사회 건설을 위한 인재가 날로 배출되고 있다.

㉞ 왜 일관도라 하는가?

먼저 일(一)이란 그 뜻이 심히 깊고 이치가 지극히 오묘하여 우주 만상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오직 하나 뿐인 선천의 묘법¹⁾이며 절대적인 것이어서 一로 표현한 것이다.

一이 동하지 않은 고요한 상태를 〇으로 표현하는데 〇은 우주를 창조한 본래로써 형상은 없지만 도를 가장 가깝게 표현한 체(體)의 모습이다.

또한 우주의 본원이며 진리의 실상을 一원상으로 나타낸 것이다. 一의 이치는 사해의 물을 붓끝으로 찍어서 표현한다 해도 전부 나타낼 수 없을만큼 신묘하고 무한대 무한소의 진리이므로 함축하여서 一로 표시한

註 1) 선천의 묘법 : 이치, 섭리,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능력.

것이다.

관(貫)이란, 이 세상의 만사만물을 한 이치로 꿰다는 뜻이다. 무에서 유까지 꿰뚫어 통하고 시작에서부터 마침까지 꿰뚫을 수 있는 선천²⁾의 묘한 작용이 우주 가운데 두루하여서 시간과 공간의 일체를 하나로 관철하고 있다는 뜻이다.

선천의 묘리인 도(道)를 떠나서는 만사가 한 치도 움직일 수 없고, 또한 존재할 수 없으며, 천지만물이 각각 이 이치를 이탈하지 못하므로 일관(一貫)이라 한다.

도(道)라는 것은 길이요,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윤리이다.

만사만물에는 선천의 묘리(妙理)와 하나로 꿰뚫는 노선이 있다. 또한 윤리의 규범이 있어 여기에서 어그러지지 않은 즉, 도에 합

註 2) 선천(先天) : 이 몸이 태어나기 이전의 곳.

치하여 천리에 순응하게 되는 것이다. 일관도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덕 사회 건설의 지침이 되는 것이다.

다시 요약하여 말한다면 一貫道는 하늘에서 땅까지 모든 공간에 두루하고 예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초월하며 만사만물이 모두 선천의 진리인 一로 다 꿰뚫어 본래로 돌이킬 수 있는 선천대도(先天大道)요, 천도(天道)이며 가장 바르고 빨리 깨우칠 수 있는 지름길(正道)인 것이다.

㉞ 일관도의 이념

극기복례¹⁾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옛 말에 백만의 군대를 항복 받기는 쉬워도 나를 이기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다.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식이 떠나지 않는 이상 오욕칠정²⁾과 번뇌망상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심이 생기게 되고 탐욕과 살상이 있게 되니 지금 세상의 인심이 극도로 타락하고 인륜과 도덕이 땅에 떨어져 극악의 경지에 이른 것도 모두 나로부터 원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을 이겨내면 성인이 되고 [극념작성³⁾ = 克念作聖], 염(念)에 끌리면 범

註 1) 극기복례(克己復禮) :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2) 오욕칠정(五慾七情) : 식욕(食慾), 색욕(色慾), 수면욕(睡眠慾), 명예욕(名譽慾), 권세욕(權勢慾)의 오욕(五慾)과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欲)의 일곱 가지의 정을 말한다.
 3) 극념작성(克念作聖) : 염을 이기고 성인을 이룬다.

부 중생이 된다는 것도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나를 이긴다는 것은 내 몸의 물욕지심을 이기고 사심을 공명정대한 천량심으로 돌이켜 예(禮)를 다시 찾는다는 뜻이다.

예라는 것은 나를 대하는 상대방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상대의 의사를 먼저 존중하고, 사리사욕보다는 공리(公利)를 위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타락한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륜강상을 다시 찾아 도덕사회 건설을 이룩하는데 큰 뜻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구현도 극기복례를 초석으로 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일관도의 이념을 실천하여 극기할 수 있다면 세계는 원망과 다툼이

자취를 감추고 크게 평화로운 가운데 예의는 자연 본래대로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仁)의 사회, 곧 모든 이들이 한마음이 되는 도덕사회가 돌아올 것이다.

극기(克己)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갈 줄 아는 사람은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흔들림 없는 태산처럼 온갖 칭찬이나 비방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백만의 군대를 이기기 보다는 자기 하나 이기기 더욱 어렵다. 모든 본능을 이겨 누르고 오욕·칠정·번뇌·망상을 끊어 사대육신 부려서 착한 일 하는 이, 그가 바로 큰 승리자이다.

세상에서 제아무리 강한 자라도 자기를

이긴 이는 당할 수 없고, 귀신도 마왕도 당할 수 없다.

하늘을 나는 백학처럼 소요자재한 마음 속 극락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리라.

㉘ 강령과 종지

강령(綱領) : 모든 일의 으뜸되는 버리

- ① 도덕제세(道德濟世) : 도덕으로써 세상을 구제한다.
- ② 진리화민(眞理化民) : 선천의 진리으로써 백성을 교화한다.
- ③ 구정세도(救正世道) : 바른 도로써 세상을 구원한다.
- ④ 실천강륜(實踐綱倫) : 삼강오륜을 실천한다.
- ⑤ 국시순응(國是順應) : 국가의 모든 시책에 순응한다.

종지(宗旨) :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 ① 경양천지(敬仰天地) : 천지를 공경한다.
- ② 예배신명(禮拜神明) : 신명에게 예배한다.

- ③ 효순부모(孝順父母) : 부모님께 효도한다.
- ④ 존중사존(尊重師尊) : 스승을 존경한다.
- ⑤ 독신붕우(篤信朋友) : 벗과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 ⑥ 화목향린(和睦鄉隣) : 이웃과는 화목해야 한다.
- ⑦ 근언신행(謹言慎行) : 말을 삼가하고 행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
- ⑧ 개악향선(改惡向善) : 지난 날의 나쁜 습관을 고치고 선으로 향한다.
- ⑨ 본성회복(本性回復) : 착한 성품을 본래대로 회복시킨다.

㉑ 일관도의 핵심적인 가르침

각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과 진리는 서로 통한다. 특히 동양의 삼대 종교인 유교·불교·선교는 비록 문호는 달리하고 있지만 근본 원리는 결코 다르지 않다. 실천 덕목으로 되어 있는 유교의 삼강오륜과 불교의 삼귀오계, 선교의 삼청오행이 비록 말의 표현은 다를지라도 근본 뜻은 하나이다.

유교에서는 마음을 잘 보존하여 성을 기른다[존심양성 = 存心養性]하였고, 불교에서는 마음을 밝혀서 성을 본다[명심견성 = 明心見性] 하였으며 선교에서는 마음을 닦아 성을 단련한다[수심연성 = 修心煉性] 하였으니 이 모두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천부지성(天賦之性)의 묘한 이치를 깨달아 대자연의 섭리에 합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삼교 모두가 선천대도(先天大道)의 정

로(正路)를 찾아 본래면목을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깨달음을 얻어 진리를 터득하신 모든 부처님이나 성인들도 일찍이 과거의 성인들께서 깨달았던 직지인심 견성성불(直旨人心 見性成佛)할 수 있는 도통을 이어 대도를 널리 천명하였던 것이다. 비록 여러 경전의 표현 방법은 달라도 근본 진의는 다르지 않다.

유교에서는 예의를 존중하여 인륜도덕을 부르짖고, 불교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규계(계율)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선교에서는 무위자연의 도에 합하는 방법을 참선공부로서 으뜸을 삼았다. 비록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과 과정은 여러 갈래일지라도 그 목적은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일관도의 진리는 모든 종교의 각종각파를 통

합하고 천경만권의 경전도 다 포괄할 수 있다.

도는 천문만교가 생기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해 있었다. 이 오묘무궁한 도의 진면목을 찾고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것이다.

동토(중국)의 16대 조사이신 유조께서는 삼교의 원리를 하나로 합일하였다. 그래서 이론만이 아닌 실제 수양에 있어 실천할 수 있는 유교의 예의를 행하고 불교의 규계를 돈독히 지키며 선교의 참선공부로서 내면의 자아를 일깨우는 교리를 통합하여 일관도의 수행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일관도의 진리는 오교의 뿌리로, 우주의 근본 이치를 성인의 진학맥인 명사일지점(明師一指點)을 통해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법이 하나로 귀일되는 진리이며 앞으로 세계 인류의 정신적 지주가 될 근본 핵심의 도리이다.

10 일관도에서 모시고 있는 신불

일관도에서는 우주 최고의 주재자이신 명명상제¹⁾를 모시고 있으며 미륵불을 주존불로 하고 좌우 보좌불로는 남해고불(관세음보살)과 제공활불(활불사존)을 모셨다. 그 외 성인, 부처님, 신인, 신선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명명상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의 또 다른 명칭으로 우주를 지배 섭리하는 조물주이시며 만령을 낳으신 모체이므로 노모(老母)님이라고도 부른다.

일관도에서 주존불로 모시고 있는 미륵불은 석가불의 뒤를 이어 앞으로 오시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미래불, 메시아, 또는 당래교주 미륵세존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포대

화상의 후신이라고도 한다. 왼손에 포대를 쥐고 계시는데 이것을 건곤혼원포대라 한다.

앞으로 오는 세상의 교주가 되실 미륵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날 세상에는 미륵불에 대한 많은 서적과 예언이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륵성불경, 미륵상생경, 하생경, 미륵경 등을 들 수 있겠다. 그런 여러 종류의 책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미륵불은 천상에 있는 도솔천 내원궁의 주인이신데 말세가 되면 오탁악세의 인간세상에 하생하시어 많은 중생들을 최고의 정법으로 제도하시고, 이 세상을 지상극락(지상낙원), 대동세계로 건설하는 중대한 임무를 띤 구세불로서 오심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시는 시기는 언제인가? 견해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

註 1) 명명상제(明明上帝) : 노모님, 하느님, 조물주, 창조주, 천주님

지 이견이 있으나 56억 7천만년 후에 출세하신다는 설도 있고,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 팔만세가 되는 때에 오신다는 설도 있으나, 이 내용은 여러 가지 논리에 어긋나고 있다.

한 예를 든다면 석가불께서 맡으신 삼천년 기간 중 정법으로 천 년, 상(象)법으로 천 년, 말법으로 천 년을 다스리신 후 미륵불이 오실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신빙성이 있는 견해이다.

과거 1기 부처님이신 연등불의 운도 1500년간 밖에는 제도하지 못했으며, 예수의 법을 전하는 기간도 2000년이므로 2000년 후면 재림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석가불의 출세에서부터 미륵불이 오시기까지를 56억 7천만년이 걸린다는 논리는 들어맞지 않는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보거나 인심이 극

악해진 세태를 짐작하여 보더라도 현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물질만능으로 인한 몰욕지심 때문에 극도로 타락된 인간의 심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정신적인 영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앞으로의 세상에는 본래면목을 되찾아 심성을 개발한 사람만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영도할 수 있을 것이다.

미륵부처님은 본성의 소재처를 알아 곧 우주의 신묘한 진리와 통할 수 있는 심인진법(心印眞法)을 전하는 당래 용화세계의 교주로 오시는 분이다.

지금 이 때 일관도의 명사 일지점(구도)을 구하지 않고는 정법을 찾기 어려울 뿐더러 본래면목을 회복시키기가 참으로 어렵다.

참된 미륵신앙은 도통의 진전·심법의 진전·천명의 진전이 있어야만이 미륵불의 정도(正道)가 된다는 점을 명기한다.

네 가지 얻기 어려운 것〔四大難得〕

- 1.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人身難得〕
- 2. 동토(부처님이 오신 땅)에 태어나기 어렵다〔東土難生〕
- 3. 명사를 만나기 어렵다〔明師難遇〕
- 4. 진도를 만나기 어렵다〔眞道難逢〕

11 구도의 의의와 예식절차

도는 바로 자연의 섭리이고 선천의 묘리이며 만물을 생성한 우주의 근본이다.

이 선천의 묘한 이치로 인하여 만사만물이 생성되었는 바, 이치(도)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

이 이치가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인신 중의 본성이며 성품의 지극한 이치인 성리(性理)이다.

선천의 신묘한 이치가 사람마다 부여되어 있는데 왜 구도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성품의 이치인 본성 곧 생명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며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는 도(선천의 이치) 가운데에서 늘 생활하고 있지만 도의 묘한 이치를 대다수가 알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근¹⁾이

본성에 가리워져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

본래면목인 부처의 모습을 잃어 오묘하기 그지없는 성리²⁾가 욕심에 가려지고 애정에 끌린 바 되어 꿈 속 같은 생활 속에서 옳고 그름과 진·가를 판단치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질대로 어두워져 미혹된 길을 헤매인지 육만년이 되었다. 또한 술한 세월을 낳고 죽는 윤회고에 빠져 헤어날 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인심은 날로 험악해지고 도덕운상이 땅에 떨어져 오늘날 온 인류는 더없는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하늘에서 진도를 내려 지금까지 단전으로 전해오던 도통맥³⁾의 심법을 오늘날 삼기보도(三期普渡)의

때를 만나 만천하의 모든 인류에게 다 전하고 있다. 이 진도를 구해 본래면목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인신 중에 주어진 하늘의 미묘한 이치인 천부지성(天賦之性)의 마음자리를 명사 일지점(明師一指點)¹⁾으로 찾아 주어 대도의 이치와 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도(求道)이다.

도를 구하지 않고는 생사의 근원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윤회의 고통을 벗어날 수 없고 겁살을 면할 수 없으며 영생²⁾할 수 있는 묘리를 얻을 수 없다. 과거의 성인이나 부처님도 이 명사일지점을 얻지 않고는 대도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었다.

석가불이 연등불로부터 전해 받았던 마정

註 1) 명사일지점(明師一指點) : 선천의 이치를 깨달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진수를 전해주는 법.

2) 영생 : 초생료사, 부활.

註 1) 육근(육적) : 눈, 귀, 코, 입, 몸, 뜻.

2) 성리 : 도심, 양심, 천심.

3) 도통맥(道統脈) : 성인(聖人) 한 분 한 분에게만 은밀히 전해 내려온 성리진전(性理眞傳).

수기(摩頂受記)나, 예수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받음으로써 구세주로서 하느님의 말씀¹⁾을 알릴 수 있었던 것이나, 공자님이 노자님께 예를 물었던 것이 모두가 도통맥의 심인진법을 전해 받은 것으로 성인이나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오늘날 인류에게 도를 깨달은 명사의 심인진법이 널리 보도됨은 삼기의 마지막 운에 천만 번 다행한 일이다.

석가불이 왕궁을 버리고 입산하였던 의도를 충분히 헤아려서 꿈같고 환상같고 물거품같은 덧없는 무상의 생활 속에서 생의 보람을 찾고 본래의 면목을 회복시켜 영생의 길을 구할 수 있는 일관도의 진전을 구하지 않으시려는가?

구도를 하려면 다음 소정의 예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교에 은사(恩師)·계사(戒師)·법사(法師)가 있듯이 먼저 삼사(三師) 즉 인사·보사·점전사가 있어야 한다.

첫째, 인사(引師)란 천도(天道)를 구하고자 하는 원인(原人)¹⁾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먼저 일관도에서 구도를 한 후 성리의 참된 이치를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이라야 다른 원인을 인도할 수 있는 인사가 된다.

한 불자에게 일관도의 심인진법을 전해주고 본래면목으로 회복시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공덕은 무량하다.

윤회와 겁난에 떨어질 원인을 하루라도 빨리 구제하여 성리진전의 대도를 전해줄 책임이 도친(道親)¹⁾ 모두에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註 1) 하느님의 말씀 : 천명(天命).

註 1) 원인(原人) : 선천의 원래불자.

둘째, 보사(保師)란 인사가 데리고 온 원인에게 성리진전을 전해주기 위하여 인사와 같이 원인을 보증하는 사람이다.

선천의 대도인 성리진전(性理眞傳)을 원인에게 전해 주는데 두 분 인사·보사가 보증을 해야 한다.

구도시 인보사(引保師)의 입원문(立願文)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맹세사항이 있다. “분향 후 원인(原人=구도인) 아무개를 인도한 이 길이 사도사범(=左道傍門)이거나 사교(邪教=사이비 종교)라거나 구도인의 금전이나 재물이 탐나서 거짓말로 속여 나쁜 길로 인도하였다면 인사와 보사는 하늘의 다섯 가지 벼락으로 이 몸을 부숴버려도 달게 받겠다”

이 원문을 불전에서 올린 후에야 구도인(原人)은 구도를 할 수 있다.

인사와 보사 두 분은 구도인에게 있어서는 과거세부터 서로의 은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점전사(點傳師)는 일지점(直指人心)을 전해준다. 점전사는 사람의 스승으로서 표간이 될 인재라야만 점전사의 자격을 갖추게 됨을 기준으로 삼는다.

천명을 대신한 명사로부터 수명(受命)한 후 다년간 수련을 마친자 만이 명사를 대신하여 일관도의 진전을 전할 수 있다.

이 삼사(三師) 중 어느 한 사람만 없어도 구도는 어려운 것이니 선천대도의 묘한 이치를 전함이 어찌 가벼울 수 있겠는가? 누구든지 어진 인도자를 만나서 이 좋은 기회에 구도를 하여 본래고향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註 1) 도친(道親) : 구도하여 道로써 친해졌다는 뜻으로 일반 종교의 신도와 같은 말.

구도인은 인사·보사·점전사 세 분을 인연하여 불전(佛前)에서 10가지 큰 맹세(십조대원)를 한 후 선천의 묘리와 통할 수 있는 핵심²⁾을 구하게 된다.

이 십조대원은 대도를 얻어 잘 수행하여 불자로서 손색없는 실천의 길을 가겠다는 일종의 하늘과의 맹세이다.

선천대도인 진도진법의 무궁무진한 이치에 통달하는 길이 과거에는 피나는 수련 끝에 얻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은 삼기미륵부처님의 보도운의 시기이므로 진도의 묘리를 구하여 수도할 수 있는 좋은 때이다.

마음의 문을 열고 대도의 이치를 구하여 본래면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보람된 삶의 기쁨이 되기 바란다.

본래로 회복된 천량심 가운데 바로 극락이 지상에 이루어짐은 인간 각자의 마음을 본래심(천심, 도심, 양심)으로 돌이킴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 바로 불보살의 낙토가 건설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요순세계의 재현이니 여러 어진 이들은 하루 빨리 구도를 하기 바란다.

註 1) 본래 고향 : 무극이천, 서방정토, 천당.
2) 핵심 : 인신(人身) 가운데 있는 본성의 소재지 곧, 본래면목인 마음자리.

12 일관도에서 행하는 제반행사

매월 음력 초하루·보름을 정기 집회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낮 오(午)시¹⁾에 대전일(大典日)예식을 거행한다.

지존하신 명명상제로부터 자기 조상에 이르기까지 차례를 지켜 분향 후 예를 올린다.

그리고 매일 아침·낮·저녁 세 차례의 예불〔朝燒香, 午燒香, 晚燒香〕이 있으며 그때마다 참회와 기도로써 우리의 천부지성(天賦之性)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가고 있다. 그외 사귀성탄절²⁾의 행사가 있으며 헌다례(獻茶禮), 헌공례(獻供禮)가 있다.

그리고 각 법단마다 매주 정기적으로 도리를 연구하는 도리연구반이 있다. 전국적인

규모의 큰 행사로는 일년에 두 차례 정기적으로 음력 정월과 팔월에 전국 도친이 모이는 반기(班期)가 있다. 이 때에는 대법회가 열리는데 대도를 얻고 수행의 길에 들어온 사람이면 누구나 이 집회나 예불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의 영적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밖에도 다수의 행사가 있으며 특히 여름과 겨울 두 차례 방학기간 중에는 도리연수반기가 개최된다.

구도한 후 열심으로 실천하여 정진하게 되면 모든 기회에 참여할 수 있을 뿐더러 자신의 내적인 무궁한 발전을 위해 더 없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註 1) 오(午)시 :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낮 12시경.

2) 사귀성탄절(四貴聖誕節) : 聖·佛·神·仙의 성탄 기념일.

4. 도리공부

석가부처님께서는 깨달았던 대도의 이치를 49년간이나 되는 긴 시간에 걸쳐 팔만사천의 방편법으로 설하셨다.

진천대도인 일관도의 오묘한 이치 또한 어찌 좁은 지면에 적을 수 있으며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오.

깨달음을 얻어 성인이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지 않고는 도의 실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불법은 자각법문(自覺法門)이요 교외별전(敎外別傳)¹⁾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에 도의 이치를 알기 위한 공부라기 보다는 도의 피상적인 면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적어본다.

註 1) 교외별전(敎外別傳) : 말이나 글로 가르치는 외에 달리 전하는 것.

① 삼천(三天)에 대하여

이천(理天) · 기천(氣天) · 상천(象天)

우주는 광대무변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밖에도 여러 개의 태양계가 있다고 한다. 거리로는 몇 억 광년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기 어렵고 시작과 마침이 없으며 무에서 유가 나타나고 다시 유는 무[근원]로 돌아가는 많은 순환을 거칠 뿐이다.

도학에서는 이 무한대인 우주의 공간을 이·기·상(理·氣·象) 셋으로 구분 짓고 있다. 맨 먼저 이천(理天)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극(無極) 이천(理天)

오로지 선천의 오묘한 이치¹⁾만이 존재하고 있는 순수한 절대 진리의 세계이다.

註 1) 이치(理致) : 창조주의 섭리, 자연의 이치.

이 하늘은 지극히 고요하여 어떠한 형상이나 소리, 냄새도 없고 오직 우주를 창조한 이치[도]가 있는 곳으로 천지만물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우주의 본원처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무너짐이 없고 변함이 없는 지극한 이치의 하늘이며, 인간들의 본래 영혼의 고향이다.

천지만물의 최초 근원지이자 최후의 귀속처이다.

이 하늘의 지극한 묘리를 깨달은 분이 바로 성인이나 부처이며, 그 세계를 주재하는 분을 명명상제, 노모님, 하느님, 절대자, 천주, 조물주, 창조주라 일컫고 있다.

불교의 용어로는 무색계(無色界)라고 부른다. 실상의 세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곳이다. 무극이천의 만물을 창조한 이치와 내 몸 안의 자성의 이치가 하나임을 깨

달아 진리를 터득한 성인이나 부처, 신선은 영원히 초생료사(부활)할 수 있게 된다.

태극(太極) 기천(氣天)

음과 양의 두 기운으로 만들어진 하늘을 말한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음과 양 두 기운에 의하여 형상으로 나타났다.

음양 두 기운이 처음 형상으로 나타난 것을 일러 하늘과 땅이라 한다. 그 외 낮과 밤, 남과 여(아담과 이브) 등의 상대적인 것 모두가 무극의 절대적인 세계에서 나타난 상대적인 두 기운이라 할 수 있다. 두 기운은 다시 엉켜 셋을 낳음으로써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근본체가 된다. 이 곳을 일러 인간 세상에서는 천당이라 하는데 이것은 육도(六途) 중 천상도이다.

인간세상에서 대도의 진전은 구하지 못했으나 착한 행을 다한 충신, 열녀, 효자, 효부가 갈 수 있는 세계로 선업을 쌓은 과보로 선과(仙果)를 얻어 태어나는 곳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계(色界)이며 윤회가 그치지 않은 곳이며, 이 세계를 주재하는 분을 옥황상제라 칭한다.

불극(佛極) 상천(象天)

태극의 음기와 양기로 인하여 삼라만상이 나타난 현상세계이다. 변화무쌍한 형상들만이 존재하는 세계라 하여 상천(象天)¹⁾이라 일컫는다. 불교에서 말하는 욕계(欲界), 사바세계이다.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천부지성(天賦之性)¹⁾이 본

래면목[부처님 모습]을 잃어 머물게 된 괴로움이 많은 업지(業地)이다.

지금 이 때 사바세계에 머무는 동안 가합체인 육신 가운데 부여되어 있는 천부지성을 명사의 심인진법(心印眞法)으로써 찾아 본래대로 회복시켜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 무극이천의 이치와 하나되어 영원히 초생료사[부활]할 수 있는 진도를 닦아야 할 때이다.

육체의 본능 때문에 고통이 생기고 고통으로 인한 미혹한 마음이 업을 짓게 되므로 부처님께서서는 육신을 일러 고(苦)의 집단이라 하였다.

그러나 고의 집단인 육신을 버리고서는 도를 찾아 닦을 수 없고 초생료사 할 수 없다.

몸이 바로 도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이다. 성인이나 부처도 육신에 따른 모든 오욕칠정,

註 1) 상천(象天) : 형상으로 나타나는 세계.

註 1) 천부지성(天賦之性) : 영혼, 본성, 주(主).

번뇌망상을 제거한 후 성불의 길을 찾았던 것이다.

육신은 가합체이면서도 우리의 본성(영혼)을 담은 법기(法器)이다. 상천(象天)인 이 땅에 육신으로 머물러 있는 동안 명사를 찾아 구도하여 육근을 행복받고 꾸준한 정진으로 기천(氣天)을 뛰어 넘어 천당, 극락인 무극이천(無極理天)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졌으면 한다.

② 삼기(三期)에 대하여

삼기(三期)란 부처님께서 출세하신 시기를 셋으로 구분한 것을 뜻한다.

이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은 수많은 부처나 보살이 계셨지만 천명(명사일지점)으로써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부처님은 연등佛·석가佛·미륵佛 이 세 분 주세불 뿐이다.

제 1 기

맨 먼저 제도(濟度)를 맡아 오신 연등佛은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오셨다.

이 부처님이 법을 펴신 기간을 제 1기 청양기(연꽃에 비유하여 연잎 운)라 한다. 법이 전해 내려온 기간은 1500년이었으며 도와 겁살(9겁)으로써 선과 악을 제도하였다.

제 2 기

주세불은 석가모니불이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나셨다.

연등佛의 뒤를 이어 두 번째 제도를 맡아 오신 뜻에서 2기 주세불이라 한다. 이 부처님이 계신 기간을 연꽃 운인 홍양기라 하며 3000년간 법이 전해졌다. 역시 세상을 제도하기 위하여 선과 악을 다스리셨으며 선천 대도의 삼보로써 원불자를 제도하고 악한 무리는 겁살(18겁)로써 다스렸다.

제 3 기

주세불은 미륵佛이다. 석가불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중생을 제도하러 오셨으며 법운은 10800년이다.

이 때는 연뿌리를 상징하여 백양기라 하며

도와 겁살을 내려 착한 사람은 도로써 구원하고 악한 사람은 겁살(81겁)로써 심판한다.

삼기의 예법은 때에 따라 다르다.

제 1기는 연잎모양 자결단장(子結單掌)이고 제 2기는 연꽃모양 자오합장(子午合掌)이며 제 3기는 연뿌리모양 자해합동(子亥合同)이다.

제도기간과 겁살의 수 또한 다르다.

제 1기 때는 사람의 마음이 수면불심(獸面佛心)¹⁾으로 인심이 후덕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겁살은 9겁으로 물심판이었다. 기독교에서는 노아홍수로 말한다. 이 때에는 육도중에 지옥도가 없었다.

註 1) 수면불심(獸面佛心) : 얼굴은 짐승같이 못생겼으나 마음은 부처님 마음.

2) 인면인심(人面人心) : 사람 얼굴에 사람 마음으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마음.

제 2기 때는 인면인심(人面人心)²⁾으로 겁살은 18겁, 불심판으로 육도윤회의 심판이었다.

제 3기에는 불면수심(佛面獸心)³⁾이어서 모두가 부처님 얼굴 같지만 마음은 극악하여 짐승에 가까우므로 81겁의 바람심판 (일종의 공기오염)이 있게 되었다.

잔살이 극도에 달한 지금 이 시대는 가다별일, 오다 별일 물·불·바람으로 심판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착한 불자를 건지기 위해 미륵불께서 정법을 가지고 오셔서 구원하고 계신다.

지금은 대동세계, 지상극락을 건립하기 위한 대전환기이며 인간 각자각자의 마음에 불보살 마음을 심어 한마음이 되는 활발세계의 준비기간이다.

뒷면의 삼기 대조표를 참조하여 보고 지금의 시대를 잘 인식하여 가장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모두 도를 구하여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

註 3) 불면수심(佛面獸心) : 얼굴은 부처님처럼 잘 생겼으나 마음은 짐승의 마음.

삼기대조표

제 1 期	청양기(靑陽期), 연잎, 봄 운
주 세 불 (主世佛)	연등고불(燃燈古佛)
법 운 (法 運)	1500년간 대동세계(大同世界) 수면불심(獸面佛心)
겁 (劫)	9劫, 용한수겁(9년) 노아홍수, 복희氏 시대
수원한 원인 (收圓한 原人)	3月 3日 반도대회(蟠桃大會) 2억원자 수원 버들가지를 꽃아 선악분별
수 원 모 (收圓 母)	천반(天盤) = 연등불 도반(道盤) = 복희氏 인반(人盤, 수원모) = 왕모낭낭
심 판 (審 判)	인도·축생도(人道·畜生道) 분리심판 (考道 = 아령왕)
삼 보 (三 寶)	①현관(玄關) : 본성 소재지 ②구결(口訣) : 무량수불 (사자진언) ③합동(合同) : 자결단장(子結 單掌 = 한 손 연잎모양의 절)

제 2 期	홍양기(紅陽期), 연꽃, 여름 운
주 세 불 (主世佛)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
법 운 (法 運)	3000년간 (正法1000년 象法1000년 末法1000년) 소강시대에서 거란시대로 (小康→據亂) 인면인심(人面人心)
겁 (劫)	18劫, 적명화겁(赤明火劫) 7년 대한(大旱), 주소왕시대
수원한 원인 (收圓한 原人)	6月 6日 앵도대회(櫻桃大會) 2억원자 수원 쑥대를 꽃아 선악 분별
수 원 모 (收圓 母)	천반(天盤) = 석가佛 도반(道盤) = 주나라 문왕 인반(人盤, 수원모) = 요지금모
심 판 (審 判)	사생육도(四生六途), 윤회심 판(輪廻審判)(考道 = 申公豹)
삼 보 (三 寶)	①현관(玄關) : 본성 소재지 ②구결(口訣) : 나무아미타불 (육자진언) ③합동(合同) : 자오합장(子 午合掌) = 연꽃모양의 절)

제 3 期	백양기(白陽期), 연뿌리, 가을 운
주 세 불 (主世佛)	미륵고불(彌勒古佛)
법 운 (法 運)	10800년간 잔살→대동세계 (殘殺→大同世界) 불면수심(佛面獸心)
겁 (劫)	81劫, 연강풍겁(延康風劫) 오미교체지제(午未交替之際)
수원한 원인 (收圓한 原人)	○月○日 용화대회(龍華大會) 92억 원자 수원
수 원 모 (收 圓 母)	천반(天盤) = 미륵고불 도반(道盤) = 사존대인 인반(人盤, 수원모) = 성모님
심 판 (審 判)	인반·축생반·지옥반으로 고정 심판(固定審判) 고도(考道[고를 주는 사람]: 아수라왕
삼 보 (三 寶)	①현관(玄關) : 본성 소재지 ②구결(口訣) : ○○○○○○ (오자진언) ③합동(合同) : 자해합동(子 亥合同 = 연뿌리모양의 절)

③ 일원의 변천과정

우주가 처음 열렸을 때부터 무수한 변천을 거쳐 우주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일원이라고 한다.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지나 현재에 이르렀기에 그 아득한 세월을 어찌 짧은 인간의 수명으로 고찰해 볼 수 있으리오.

하지만 이치란 일정한 것이요, 수(數)도 또한 일정한 것이므로 이치를 수로 미루어 따져본다면 일치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루도 12 때인 일정한 시간을 주기로 반복되고 한 달은 평균 30일을 주기로 바뀌며, 일 년도 12달을 일정한 기간으로 계속 반복된다. 이러한 이치로 미루어 대우주의 순환도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원의 변천과정을 숫자로 풀이한 동양의 역서를 고찰하여 본다면 천지의 운행하는 순환을 시초에서 종말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게 된다.(도학신론 참조)

하루가 자시(子時)에 시작되고 일 년은 일월에 시작되듯이 우주도 자회(子會)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무거운 기운은 가라앉아 땅을 이루었으며, 10800년 동안 변화를 거듭하여 축회(丑會)에 땅이 생겼다. 인회(寅會)에 하늘로부터 이 지상에 사람이 강생하였으니 지금부터 약 6만년 전이다.

이로부터 天·地·人 삼재(三才)가 이루어진 후 만물이 묘회(卯會)까지를 기준하여 전부 생하게 되었다.

자회에서 묘회 때까지의 삼회 동안은 일 년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만물이 소생하는 장생기(長生期)인 봄 3개월이다.

묘회부터 계속 변화를 거듭하여 봄 동안 생겼던 만물이 고도의 발달을 가져오는 진(辰)·사(巳)·오회(午會)는 일 년으로 비유하면 여름에 해당된다. 이 때를 만물이 무성하게 번성하는 여름 운 시기인 장양기(長養期)라 할 수 있다.

오회에 이르러서는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되고 도(道)가 나타나게 되는 우주의 절정적인 시기이다. 이 시점을 기준하여 성인이 모두 출세하였다.

지금은 오회가 끝나고 미회(未會)로 교체되는 시기이며 대우주의 순환 중 가을 추수기로 접어든 때이다.

미륵 부처님은 우주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귀중한 시기에 대도로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삼기의 대도사이다.

미회에서 신회(申會) 사이 10800년 미륵불

의 대동세계(지상극락, 유리세계, 유토피아)가 전개된다.

신화에 이르러서는 인멸(人滅)이 된다.

성주괴공(成住壞空)¹⁾과 똑같은 생주이멸(生住異滅)의 원칙에 따라 인류가 멸한 다음 유회(酉會)에서는 지멸(地滅) 곧 땅이 없어지게 된다.

술회(戌會)에 하늘이 원래의 상태인 무극(선천)의 진체로 돌아가 다시 고요하여 우주의 원초적인 상태가 된다. 순환을 거듭하여 자회에 또 다시 하늘이 열린다.

지극히 고요한데서 움직임이 있게 되고 움직임에서 형상이 나타나며, 형상에서 발전이 있고 변화가 되어 우주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계속 순환하게 된다.

시간에는 시종이 없고 공간 또한 처음과 끝이 없다. 우주의 광대무변한 변화 속에 극히 짧은 순간을 머물게 되는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감안하여 보람있는 생이 무엇인가 헤아려 볼 일이다.

여기에 그림으로써 일원(一元)의 변천과정을 그려본다.

※ 우주의 순환주기를 1년의 주기에 단축시켜 비교하여 보자.

1日 = 24시간 : 12時(地支)

1月 = 평균 30日

1年 = 12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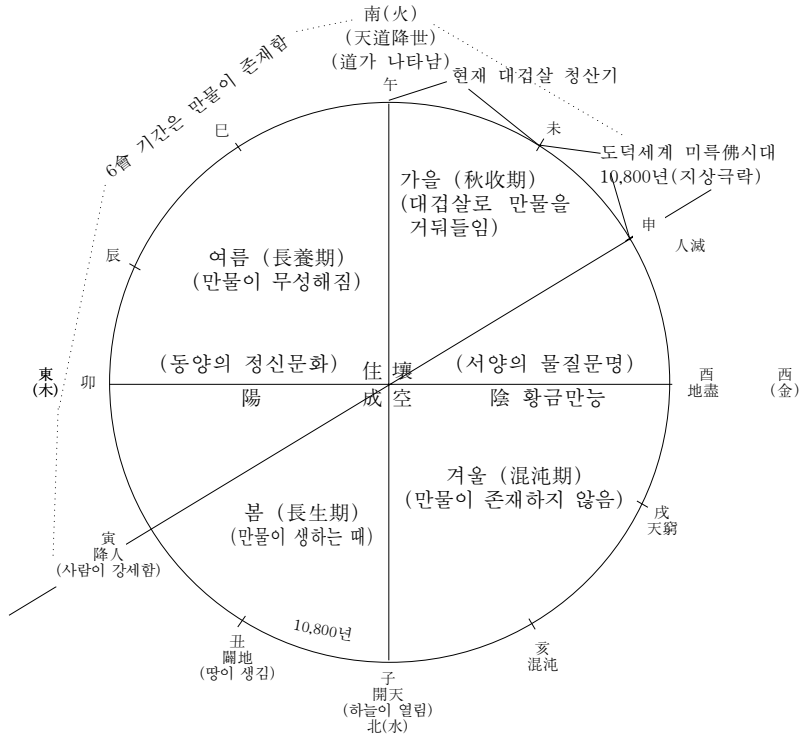
1世 = 30年

1運 = 12世 = 360年

1會 = 30運 = 10800年

1元 = 12會 = 129600年

註 1) 성주괴공(成住壞空) : 이루어진 것은 어느 일정 기간 머문 후 무너지고 부서져서 없어지는 우주의 사대원칙.



④ 오교성인의 성리심법

교(教)는 덕(德)에 따르는 것이고 덕은 도(道)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도·덕·교는 본래 하나이다. 그러므로 오교의 교주(五敎의 敎主)가 모두 교리(敎理)를 펴서 중생을 제도하는데서 교주 자신이 이미 대도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고 인간 각자의 정신세계를 본래모습(본성회복=부처님)으로 되찾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천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오교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노모님께서 주신 천성을 순진무구한 본래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교에서는 본성에서 발현된 마음을 잘 닦아 본성을 단련하자[修心煉性] 하였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근원을 잡아 하나(이치)를 지킬 수 있다[抱元守一] 하였다.

유교에서는 마음의 존재를 알고 천부지성(天賦之性)인 본성을 잘 기르자[存心養性] 하였다. 그렇게 하려면 중을 잡아야 하나의 이치에 관통할 수 있다[執中貫一] 하였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밝혀 본성을 본다(明心見性)면 만 가지 법이 하나의 이치로 돌아간다(萬法歸一) 하였다.

기독교 예수께서는 마음의 때를 잘 씻어 본성을 본래대로 변화시키려면[洗心移性] 기도로서 하나의 이치에 가까워야 한다[默禱親一] 하였다.

오교의 하나인 회회교에서는 마음을 굳건히 하여 본성이 안정된다(堅心定性)면 맑고 진실했던 본래 하나의 이치에 돌아간다[清真返一] 하였다.

각 종교가 그 때 그 나라의 민족성과 생활풍습이 달라 교를 펴는 방법이 다르고 말의 표현이 달라서 오교가 각각인 것 같지만 가르침의 근본은 모두 하나의 이치인 본래로 돌아가자는 가르침이다.

여기에서 하나의 이치로 합일되는 것이 바로 일관도의 일지점(一指點)으로 깨달은 성인의 심인(心印)을 얻어 하나에 귀일시킬 수 있는 핵심인 것이다.

여기에 오교의 가르침을 도표로 그려 한 눈에 볼 수 있게 나타내 본다. ☞

오교성인의 성리심법
(五教聖人の 性理心法)

교별 教別	본관 本觀	종지 宗旨	성리심법 性理心法	강 목 綱 目
유 교 [공자]	中 [性]	충서 忠恕	존심양성 存心養性 집중관일 執中貫一	삼강오상 三綱五常 예의를 실천
불 교 [석가 모니]	卍 [佛]	자비 慈悲	명심견성 明心見性 만법귀일 萬法歸一	삼귀오계 三歸五戒 계율을 지킴
선 교 [노자]	亞 [神]	감응 感應	수심연성 修心煉性 포원수일 抱元守一	삼청오행 三清五行 참선공부에 주력
기독교 [예수]	十 [靈]	박애 博愛 [主]	세심이성 洗心移性 묵도친일 默禱親一	삼위일체오정 三位一體五精 성령의 충만
회회교 [마호멧]	◎ [眞宰]	인자 仁慈	견심정성 堅心定性 청진반일 清真返一	삼일오계 三一五戒 회회의 誠命 존중

⑤ 일관도의 경전 안내

선천의 무궁한 이치는 말이나 글로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므로 도리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 또한 무한히 많으며 천경만권의 모든 종교의 교리도 도의 이치 하나 가운데에서 설하여진 바 도를 깨닫기 위한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그렇지만 일관도의 한 노선(도통맥)을 구하여 명사의 일지점을 얻지 않고는 참 진리를 파악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일관도의 도리를 연구할 수 있는 책자는 100여 종이 넘는다. 미륵부처님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출세 이전이기 때문에 불경이나 성경처럼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경전은 없지만 선불이나 명명상제의 강필(降筆)¹⁾을 기록한 여러 가지 책자와 오교의 경전을 교

註 1) 강필(降筆) : 천진한 어린애가 선불과 합령하여 쓴 글.

본으로 삼고 있다.

유·불·선 삼교가 합일된 일관도에서는 삼교성인의 주요 경서 외에 곤수곡인(昆水谷人) 김복당 노전인의 법어와 훈시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도학을 연구하는데 참고 될 수 있는 서적을 간략히 소개한다면 곤수곡인 법어, 곤수곡인 도회집, 곤수곡인 편지글, 노기강의 록, 도덕강의록, 천도간설, 삼보설교, 달마보전, 도학신론, 인리귀진, 대승금강경, 성리제석 외에 다수가 있다.

선천[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지 말고, 도의 진면목과 우리 자성의 본래 성품이 하나로 일치되어 원래대로 회복시킬 수 있는 성도(成道)의 기회임을 알아 모두 일관도에서 진도를 구하기 바란다.

5. 법단에서 쓰이는 용어 해설

법단에서 쓰이는 용어나 불상, 불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노모님 申字

모든 법단에 이런 모양(☉)의 마크가 모셔져 있다. 일명 노모님 마크라고 한다. 풀이하여 보면 바깥과 안의 두 원은 이천(선천)과 기천을 상징한다.

원 안의 양 옆은 음과 양의 두 기운을 나타내며, 가운데 곧게 내려 그어진 선은 우주의 핵심으로써 생명의 참된 실상을 나타냄이요, 원초적인 도의 모습이다.

대우주는 절대적인 진리와 음과 양의 조화로 생성 소멸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 마크는 우주 진리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도친 (道親)

일반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신도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우리는 다같이 일관도에서 구도를 한 도친으로 노모님(하느님)의 아들, 딸인 형제 자매이므로 영적으로는 참으로 친한 사이라 하여 도친이라 부른다.

단주 (壇主)

일관도에서 구도를 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수행을 쌓아 청구계(淸口戒)를 올린 사람을 단주라고 부른다.

곧 법단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불규를 철저히 지키고 법단 내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점전사 (點傳師)

단주로서 여러 해 동안 계행을 잘 지키고 실천을 돈독히 한 수행자에 한하여 천명을 지닌 명사로부터 수명(受命)을 받은 사람에게 이르는 명칭이다. 줄여서 점사라고도 하며 사람의 스승이 될 자격을 지녀야 된다.

불위 (佛位)

불상이나 신불의 상징을 글로 나타내 쓴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조상의 제사 때 신위를 모시는 것과 같은 뜻이라 할 수 있겠다. 일관도에서는 명명상제(하느님)의 불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불단(부처님 모신 단)을 천단(天壇 = 하느님 모신 단)이라고도 부른다. 그 외 남해고불(관세음보살)이나 제공활불을 불상이나 탕화 대신에 글을 써서 신불의 상징으로 모신 불위가 있다.

무극등 (無極燈)

기천(氣天) 촛불[부처님 앞의 촛불] 중앙에 있는 기름불로써 무극(선천)을 상징하고 있다.

이 불은 선불이 법단에 오시는 상징을 의미하는 뜻에서 켜진다. 일관도에서 도를 전하고 있는 기간에만 켤 수 있는 특수한 등(燈)이다.

자항보도 (慈航普渡)

법단 중앙의 단 앞에 켜 있는 글로써 자항이란 자비스런 배를 말한다. 이 자비스런 부처님의 배로 고행의 모든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건네준다는 뜻에서 보도라 하였으며 이 배가 바로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미륵부처님은 사바세계 고행에서 해매는 모든 중생들에게 일관도의 진전인 심인진법

(心印眞法)을 전하여 주신다.

고해를 벗어나 무극이천(본래 영혼의 고향)에 도달할 수 있는 성리진전(性理眞傳)을 구함(구도=求道)과 동시에 부처님의 고행을 건너는 자비스런 배(자항=慈航)에 오를 수 있고 미륵부처님의 제도에 힘입어 고행을 건너 무극이천인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뜻이다.

계왕성개래학 (繼往聖開來學)

법단 앞면 위에 한문으로 쓰여 있다.

이 글은 가신 성인의 심법을 이어 새로 오시는 성인의 법과 학문을 배우고 있다는 뜻이며 오교성인의 진학맥(도통맥)을 이어 인류의 구세불(메시아)이신 미륵부처님의 새로운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천불원 (天佛院)

여러 망령의 영가(靈駕)를 모신 곳이며, 이 곳에는 지장고불(석가모니 부처님 때 지장보살)이 계신다.

도가 삼조보도(三曹普渡)¹⁾의 때를 만나 돌아가신 망령도 천도를 하게 되는데 이 예식을 일러 초발(超拔)이라고 한다. 죽은 사람이 초발을 받게 되면 천불원에서 일정한 기간 수련을 거친 후 무극이천(극락)에 오르게 된다.

끝으로 옛날에는 군왕들이나 선비들만 닦을 수 있었던 도가 오늘날에는 서민화택에서 누구나 닦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

이것은 물 속의 연꽃이 불 속에서 피는

격이다. 서민들 가운데에서 삼천육백 성인과 사만팔천 현인을 선발하여 九경 八서의 경전으로 만팔백년 미륵불의 요순 대동세계(활불세계, 이상세계)를 만회하기 위하여 삼천대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륵부처님의 대 역사에 모두 참여하여 천추만대에 길이 남을 새 시대의 새로운 사람[新民]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지 말기 바란다.

언제든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인연자를 기다리고 있는 국제도덕협회 일관도의 도친이 되어 지상낙원의 신민이 되자.

註 1) 삼조보도(三曹普渡) : 윤회를 마치지 못한 기천의 선불, 인간 세상의 생령, 지하의 돌아가신 망령들에게 도를 전하여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삼기의 주세불인 미륵부처님 운에만 가능하다.

天道簡說

초 판 발 행 : 1984년 12월 20일

개 정 판 발 행 : 1993년 12월 20일

재개정판발행 : 2002년 12월 24일

재개정2판 발행 : 2008년 4월 5일

인 쇄 : (주)삼보아트 TEL. 2271-0390

발 행 처 : 財團 法人 國際道德協會一貫道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173-81

TEL. 821-3221, 815-8681~2

815-6183

비매 품

